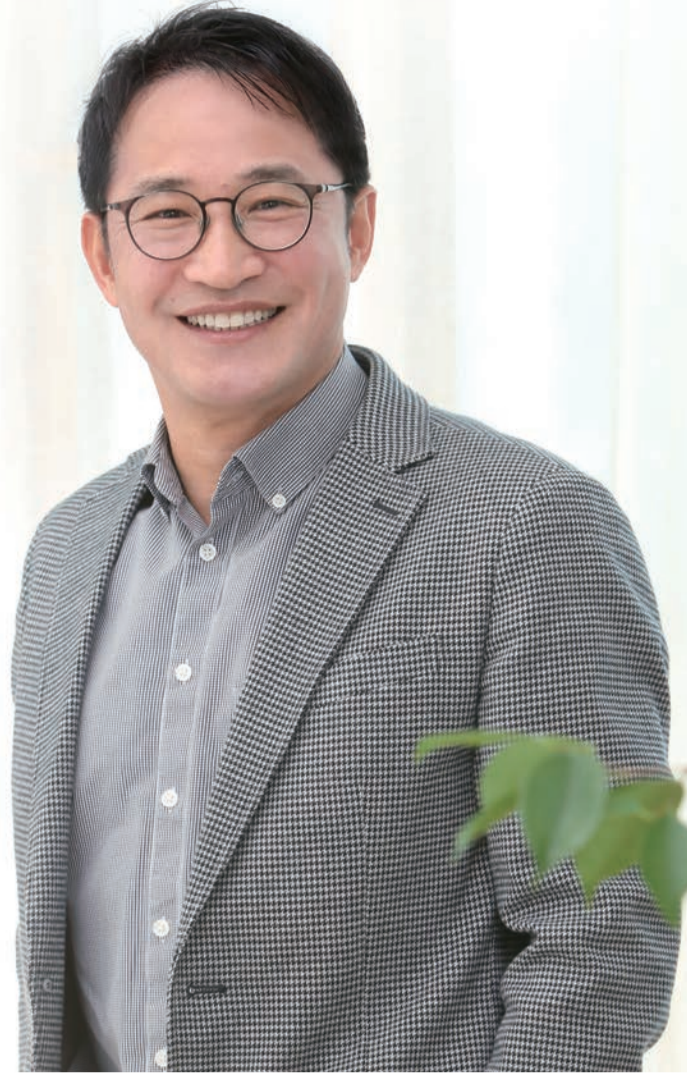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원 여러분!

제16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에 단독입후보하고 지명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자로 지명받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조계춘입니다.

2002년 KAIST에 부임하여 학회에 몸담은 이후 각종 위원회 막내부터 시작하여 터널지반조사기술위원회 간사(2003~2004년), ITA2006 조직위원회 총괄간사(2004~2006년), 국제전담이사(2008~2010년), 논문집편집위원장(2012~2020년), 학술전담이사(2020~2022년), 창립 30주년기념 봄/가을 학술대회 조직위원장(2022년), 학술부회장(2022~2024년) 등 그동안 학회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였고, 학교에서는 터널관련 강의와 활발한 연구활동을 통해 후학도 많이 양성해왔습니다. 그간의 학회 활동을 통해 정말 좋은 선배님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인연은 지금까지 학회에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발전을 위해 학회장으로서 봉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학회의 나이는 30년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30년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 터널기술의 기반을 마련하신 선배님들의 열정을 존경합니다. 이제 우리 학회는 30년간 쌓아 올린 전통을 계승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터널기술인들에게 고도의 기술을 전수하여 성숙되어갈 수 있도록 할 내실을 다져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각종 터널지하공간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우리 학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고, 더불어 학회의 위상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전통을 계승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학회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제 16대 학회장에 출마하였습니다. 저는 16대 학회장으로서 학회의 발전을 위해 **‘회원과 기술을 중심으로 신지하공간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학회’** 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공약사항

1. 신지하공간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학회

- 정책 제안을 통한 지하공간 개발사업 발굴 및 선도
- 정부 및 공공기관, 산학연과의 연계협력 강화
-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미래기술 및 전략 발굴
- 기술교육 개발 및 터널엔지니어 인증제도 마련

2. 학술활동이 역동적인 학회

- 학술대회, 정책 및 기술 포럼, 논문집 위상 제고
- 미래기술 분야와 융복합을 통한 질적 및 양적 확장
- KTA Fellows Award 마련
- 지속적인 기술교육 기회 제공 및 서적편찬
- 기술위원회 활동 활성화

3. 회원과 사회와 소통하는 학회

- 회원간 기술정보 공유 방안
- 지역기반 교류 기회 확대
- 사회문화 활동을 통한 회원 교류 활성화
- 대국민 인식개선 방안 모색

4. K-Tunnel 기술의 세계화

- 국제교류 확대로 세계화 지향
- K-Tunnel 영문 홍보 강화
- 국내 터널관련 기준 해외 보급
- 젊은 기술자 해외 경험 기회 제공

5. 30년 전통을 계승하며 젊어지는 학회

- 젊은 터널 엔지니어 참여 활성화
- 30년 기술 전통의 후대 전수 활성화
- 터널·지하공간 미래기술 Dreaming 공모전 개최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는 제 고향입니다. 제가 나서 자라고 커온 삶의 터전입니다. 학회는 학술단체인 동시에 하나의 분야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소통 공간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으로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의 발전을 위해 당당히 도전해 나간다면, 우리 학회가 신지하공간 패러다임을 선도하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First Mover가 될 것 입니다.

이를 위해 저도 밑일이 되어 우리 학회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학회 발전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16대 회장 최종 후보 지명자 조계춘 배상